

장백산천지

제 169 호

2010년 5월 21일

금요일

동방건강박람회에서 나타난 기적

1992년 12월, 북경국가무역대청에서 10일동안 "동방건강박람회"가 열렸다. 무척 큰 박람회의 대청에 줄줄이 로점을 벌려놓았는데 기본상 기공이 위주였고 중의도 좀 있었다. 파룬궁로좁 앞에서 리홍지선생님은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찾아와 자문하는 사람들에게 신체를 조리하고 있었다.



리홍지선생님은 93년 동방건강박람회에서 "주변과학진보상"과 "군중의 환영을 받는 기공사" 칭호를 받았다.

어느날, 한 중년부녀가 남편의 부축하에 사부님앞으로 걸어왔다. 그는 배속에 종양이 있어 10달되는 임신부처럼 배가 컸다. 병원에서 치료할수 없게 되자 그는 박람회에 와서 사부님을 찾았던 것이다. 사부님은 그에게 약 10여분동안 조리하고 나서 손을 내밀었다가 잡아내는 동작을 하니 그의 배는 삽시에 썩 들어가면서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그의 허리춤이 헐렁하여 두사람을 넣을수 있었다. 이때 빙 둘러서서 구경하던 사람들속에서 갑자기 우뢰같은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와 남편은 사부님앞에 꿇어앉아 감사를 드리자 사부님은 두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주었다. 이 부부는 감사신을 써서 대회조직위원회에 보냈다. 박람회의 총지휘 김려송박사는 방송실에서 이 감사신을 선독하고 나서 《이번 박람회에서 제일 처음 받은 표창신은 파룬궁을 찬양한 것이고 표창신을 제일 많이 받은 것도 파룬궁이다.》고

말했다. 박람회의 총고문 강학귀교수는 《나는 직접 내 눈으로 리홍지선생님께서 이번 박람회에 나타낸 매우 많은 기적을 보았다. 파룬궁은 "밝은 별"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 나는 박람회의 총고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파룬궁을 추천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어느날 오후 4시, 하루일이 끝날무렵에 한 20여세의 젊으니가 부녀를 업고 왔다. 이 녀사는 차사고로 두 다리가 마비되었다. 병원에서는 치료할수 없었다. 사부님은 몸집이 크고 뚱뚱한 이 녀사를 잔등과 잔등을 맞대고 한창 업고 있다가 그의 잔등을 가슴에 대고 한참 자기품에 안고 뒤로 허리를 굽혔다. 이윽고 사부님은 그녀를 의자에 앉혀놓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두드렸다. 어느새 사부님의 머리에 땀방울이 돌아났다. 약 반시간 지났을 때 사부님은 그녀를 의자에서 일어나라고 하니 그녀는 일어났고 걸으라고 하니 걸었으며 달으라고 하니 달았다. 에워싼 관중들은 격동되어 박수를 쳤다. 그녀는 사부님앞에 꿇어앉아 흐느껴 울면서 감사를 드렸다. 주위의 사람들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92년 동방건강박람회에 나타난 수많은 신적(神迹)중의 두가지 사례일뿐이다. 각종각양의 신적은 매일 나타났던 것이다.

표창 받은 파룬궁학원 신기화



오타와 시장(오른쪽 첫번째)은 신기화(왼쪽 첫번째)와 다른 지원자들에게 상을 주었다.

지난 5월 6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정부에서 2009년도 영예시민 표창대회를 소집했다. 대만이민이며 파룬궁학원인 신기화(辛祺华)는 장려를 받았다.

10여년전에 대만에서 이민해 온 신기화는 오래동안 업여시간을 리용하여 "쩐싼런" 리념을 기본으로 하는 파룬궁수련을 널리 보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심신건강을 가져다주었을뿐만 아니라 천국악단에 참가하여 사회구역에서 공연했으며 각종 방식으로 캐나다정부와 인민들에게 파룬궁이 중국에서 받은 박해진상을 이야기했다.

오타와시장 로리·오프레언은 《오늘저녁에 명단에 오른 지원자와 수상자는 가장 훌륭한 레로서 무엇이 진정한 지원봉사자인가를 알수 있다. 그들의 특수공헌은 시민생활을 풍부히 했고 우리 도시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되게 했다.》라고 말했다.

종이공예:

편싼런은 좋다(신통가지법)

작자/대륙파룬따파제자



도덕이 고상하면 장수할수 있다



도덕과 장수기간에 어떤 연계가 있는가? 얼핏 들으면 량자기간에 직접적인 연계가 없는것 같다. 그렇지만 최근에 브라질 의학가 마딩스는 장수로인에 대해 10년

동안 연구하여 장수한 사람들중 약 90%로인이 모두 덕성과 명망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현대의학연구에 의하면 도덕이 좋은 사람과 도덕이 나쁜 사람의 신체건강과 수명에 대한 영향이 판판 달랐다.

수명이 좋은 사람은 마음이 선량하고 남을 돕기를 즐기며 흥금이 넓고 광명정대하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늘 평안하고 유쾌하다. 도덕이 나쁜 사람은 마음이 악하고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며 도량이 좁고 자사자리하며 음모궤계한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긴장하고 초조하다.

현대의학연구가 증명하다시피 도덕이 좋은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때 신경내분비계통순환과 각 기관배합조절이 정상적이고 신체의 면역력이 증강되어 병이 없고 신체가 건강하며 장수한다. 도덕이 나쁜 사람은 마음이 긴장하고 초조할때 대뇌피질의 기능이 실조되고 인체기관기능이 물란하게 되며 면역력이 감퇴되어 왕왕 혈압이 높아지고 심지어 고혈압병과 심뇌혈관병에 쉽게 걸려 장수할수 없다.

한국에서 퇴당활동을 공격한 중공의 폭도를 판결



지난 5월18일, 한국 수원지방법원안산본원에서, 작년에 파룬궁학원들이 8천만 퇴당을 성원하는 집회를 소란시킨 중국적 흉범 최만길, 최춘식 등 2명에게 각기 유기도형 8개월과 4개월 언도했다.



폭도 최만길은 당장에서 경찰들에게 체포되어 경찰소로 압송되었다.



연길시세뇌반에서 박해 받은 파룬궁학원들

금년 1 월 15 일부터 연길시'610'과 공안국 국보대대에서는 연길시에서 세뇌반을 꾸려 이미 4 개월동안 파룬궁학원들을 박해했다.

금년 1 월에 장흥재(张兴财)、조학순(赵学顺)、왕숙화(王淑华)、목덕용(穆德容)、문문(文文)、로로(路路)、경미영(景美英)、오순자(吴顺子) 등 파룬궁학원들이 세뇌반에서 박해를 받았다. 세뇌반에서 그들을 "전화"시키지 못해 로교소에 가둬놓고 계속 박해하고 있다. 왕숙화는 악인들의 혹형과 시달림을 받아 절름발이 되었고 얼굴이 이물어 시퍼렇게 되었으며 나중엔 정신의상에 걸렸다. 장흥재는 악경들에게 맞아 불구가 되어 장춘로교소에서 받지 않으니 장춘공안병원에 보내어 계속 박해받고 있다. 조학순은 박해를 받아 고혈압이 발작되어 장춘공안병원에서 계속 박해를 받고 있다.

금년 4 월말, 김선옥(金善玉)、김향련(金香莲)、림영(林颖) 등 파룬궁학원들은 세뇌반에서 계속 박해를 받고 있다. 악인들은 최악이 폭로될가 두려워 세뇌반 지점을 연길시공업학교로부터 연길시흥안으로, 지금은 룡정시동성려명대학으로 옮겼다.